

꿈바당편지

우리는 지금 관계의 온도를 올리는 중입니다.

지금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매화가 피었다가 진 가지에서, 잔디의 걸 겁이 벗겨진 자리에서, 든든하게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나무들에서 파릇파릇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사월, 또 지지만해 사월과 비슷한 모습이지요. 아니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함께 어우러져 풍경을 이루었던 아이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꿈바당을 찾는 아이들에게서도 파릇파릇한 새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새순과 함께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또 얼마나 설렘을 주었는지, 마냥 그림고 마냥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처럼 굳게 닫힌 꿈바당의 철문 안은 '거인의 정원' 그대로입니다. 아이들과 함께일 때는 높은 돌담도 도서관의 철문도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올 수 없는 오늘은 아주 작은 풀 한포기도 도서관과 아이들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인 것처럼 무겁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2월 24일부터 꿈바당의 철문은 닫혔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휴관일이 적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이 이처럼 오래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서일까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훌쩍 넘어선 오늘, 서가 사이에서, 복도 곳곳에서, 정원 나무아래에서, 놀이터 그네에서 신기루처럼 아이들의 형상이 스쳐 지나갑니다. 넘어져서 밴드를 붙여 달라고 찾아오던 아이도, 원하는 책을 찾아달라고 도서번호를 메모해 가지고 오던 아이도, 엄마랑 같이 왔는데 엄마가 안 보인다고 울먹이던 아이도, 데스크 뒷벽 모니터에서 소리 없는 애니메이션을 넋 놓고 바라보던 아이도 모두 불쑥 찾아올 것 같은 시간입니다.

이용자가 없어 쓸쓸한 도서관이지만, 꿈바당은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묵은 솔잎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습니다. 뒤죽박죽이던 책들은 암전히 제자리에 꽃혔고 제멋대로 자란 나무도 이발을 했습니다. 잔디와 뒤엉켜 있던 잡초도 뽑고 매일 매일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도 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꿈바당의 주제인 '인권' 관련 도서를 큐레이션 해 놓고, 그윽한 색채가 돋보이는 원화전도 세팅을 마쳤습니다. 예전보다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하루 빨리 아이들을 만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재회 할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하루 빨리 철문만 열리면 되겠지요. 아이들을 다시 만날 그 날을 위해 하루하루 동분서주로 바쁜 도서관선생님들은 완벽한 세팅을 위해 며칠 몸살을 앓았습니다. 사실 더 큰 몸살은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얼른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기대도 해 봅니다.

꿈바당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꿈바당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분명 자꾸만 꿈바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붙잡아 매느라 애쓰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쩌면 도서관 철문 앞까지 발걸음 했다가 애써 발길 돌렸을 수도 있고요. 꿈바당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며 하루 빨리 도서관의 철문이 열릴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헬렌켈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

지금 이 시간,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그 문은 가족의 사랑일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거리만큼 더 간절한 우리의 거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라도 서로를 위로해 보아요.

그리고 일상을 제자리로 옮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서로를 실컷 그리워 해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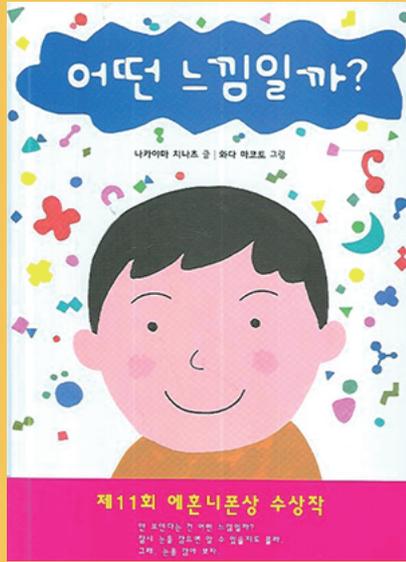
우리는 지금 관계의 온도를 올리는 중이니깐요.

4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기다리며 꿈바당에서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팀장 양민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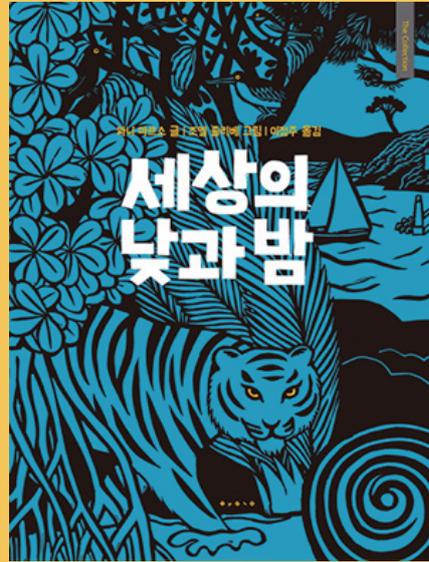
어제 읽은 책

유혜진



어떤 느낌일까?

나카야마 치나츠 글 / 와다 마코토 그림 / 보림 출판사



세상의 낮과 밤

파니마르소 글 / 조엘 즐리베 그림 / 보림 출판사

어린 시절 고난을 씩씩하게 이겨내는 전래동화 주인공들은 영웅과 같았어요. 특히 반쪽이를 좋아했죠. 반쪽이는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인 소년이에요. 형들이 호랑이들이 득실거리는 동굴에 던져도 떨어지는 커녕 팔 하나와 다리 하나로 호랑이들을 모두 붙잡았어요. 반쪽이의 호랑이 가족을 탐냈던 욕심쟁이 대감은 자신의 딸을 걸고 장기대기를 해요. 슬기로운 반쪽이가 이겼지만 대감은 반쪽이를 쫓아내요. 반쪽이는 피를 내어 하인들과 대감을 혼내주고,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혼인하죠. 영웅 같았던 반쪽이가 지금은 다르게 보여요. 동생을 괴롭히는 형들을 훈육하지 않는 반쪽이 부모, 몸이 불편한 동생을 오히려 괴롭히는 형들, 딸을 내기 대가로 삼는 아버지, 여자의 마음을 듣지도 않고 섹시를 삼는 반쪽이. 인권의 눈으로 보면 문제투성이예요.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 여성의 인권이 무시당했지요. 이런 일은 동화가 아닌 현실에도 일어나요. 피부색이 다르거나 말이나 행동이 어눌한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들, 장애인, 어린이, 여성들은 쉽게 차별받아요. 서로 다른 점을 틀리거나, 잘못된 점으로 받아들이면 인권 침해가 일어나죠. 이런 생각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인권 침해를 받게 돼요. 당장 다른 나라에 있다고 상상해봐요. 눈에 띄는 피부색, 다른 말을 쓰는 나는 약한 사람이 되지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면 누구든 위협에 빠질 수 있어요. 사실 인권 존중은 생각을 조금만 넓게 하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서로 다름을 다양함으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숨 쉬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존중하듯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지요.

그림책 <어떤 느낌일까?> 속 아이들은 서로의 다름을 대단하게 느껴요. 주인공 히로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히로는 눈이 안 보이는 마리를 보고 진지하게 생각해요. 안 보인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알고 싶어서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한참을 가만히 있어 보니 세상의 다양한 소리가 들려요. 혹시 다른 세상에 온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소리가 들리죠. 히로는 마리를 다시 만났을 때 말해요.

“안 보인다는 건 참 대단해. 그렇게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보인다는 건 그런 건가 봐. 조금밖에 들을 수 없는 건가 봐.”



히로의 말을 들은 마리는 자신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히로의 마음은 모든 친구에게 전달되고, 마지막으로 히로에게 돌아와요. 히로처럼 생각해 보기로 한 키미가 온종일 움직이지 않고 있어 뵈어요. 키미는 히로에게 웃으며 말하죠.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대단하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새로 알게 된 것도 많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을 히로는 처음으로 생각해요.

“그런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대단한 것일지도 몰라. 나도 대단한 사랑일지 모르지.”

히로의 마음에 자존감이 부풀어 올라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남과 나를 동시에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궁금해하는 히로의 눈이 있어요.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본다면 인권존중은 아주 행복한 일이 될 거예요.

그림책 <세상의 낮과 밤>에는 세계의 다양한 자연과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어요. 한 나라 혹은 대륙의 모습이 한 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구석구석 신기한 동식물과 우리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있지요. 모두 다른 듯 보이지만 책을 쭉 펼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서로 다른 나라가 하나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띠가 돼요. 우리가 사는 곳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채, 낮과 밤을 함께 살아가죠. 하나로 연결된 우리는 서로의 모습, 삶의 방법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해요. 나와 다른 삶의 방법에서 좋은 점을 배우고, 다양한 생각을 듣고, 색다른 음식과 문화를 느끼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풍부하고 아름답게 만들 거라 확신해요. 나와 너는 달라서 다양하고, 다른 너를 나처럼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인권이에요.



유혜진 작가 소개

유혜진 작가는 [안녕, 토끼나무]로 제9회 웅진주니어 문학상 단편부문 우수상을 받았으며 광남일보 신춘문에 동화부문에 당선되었습니다.

상상하며 산책하기, 화분에 물 주기, 그림 그리기, 상상한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걸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이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웅진주니어 문학상 단편부문 수상작 모음집인 <나와 제이>, <돈가스 안 먹는 아이> 등이 있습니다.

꿈낭어린이독서회 1기 추천도서

꿈낭독서회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독서회입니다.
2~3학년 어린이 10명으로 구성된 꿈낭어린이독서회는 주제에 맞는 책을 직접 탐색하고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로 바라본 책 세상



나무도장

권운덕 / 평화를 품은 책 / 2017
그림책방 813-권66L

이 책은 슬픔을 담은 책입니다.
4.3을 알 수도 있고
4.3을 겪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양윤지 어린이-



할머니의 사랑 약방

박혜선 / 크레용하우스 / 2018
그림책방 813-박94ㅎ

이 책은 가족에 대한 책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가족들이 도와주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가은 어린이-



나하고만 친구 할 거지?

엘리자베스 브로캠프 / 개암나무 /
2014 / 꿈자람책방 800-개62ㅇ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책에 나오는
친구들의 우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성혜인 어린이-



멋쟁이 낸시는 지구지킴이

제인오코너 / 국민서관 / 2016
그림책방 843-오87ㄱ

이 책에서는 진짜 지구의 날에
녹색운동을 했어요.
아빠가 슈퍼마켓 가실 때
차를 타려고 해서
1킬로미터가 안 되는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자고 했어요.
그래야 지구를 지킬 수 있어요.

-차오름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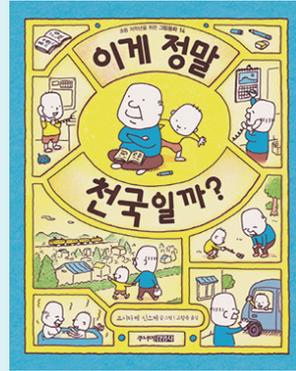


아델과 사이먼의 두근두근 중국여행

바바라 맥클린톡 / 베틀북 / 2017
그림책방 981.202-매87ㄷ

이 책은 여행을 안해도 중국의 대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동현 어린이-



이게 정말 천국일까?

요시타케 신스케 / 주니어김영사 / 2016 / 그림책방 833-요58ㅇ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서 할아버지가 천국노트를 만든 것을 남자아이가 청소를 하며 천국노트를 발견합니다. 그 노트를 보고나자 아이도 천국노트를 만들려고 노트를 산다는 내용입니다.

-김가은 어린이-



귀신이 가득한 집

조경숙 / 밝은미래 / 2014
그림책방 813.7-조14ㄱ

이 책은 도깨비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 집이 비어서 도깨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사람과 도깨비가 무언가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세요.

-고은성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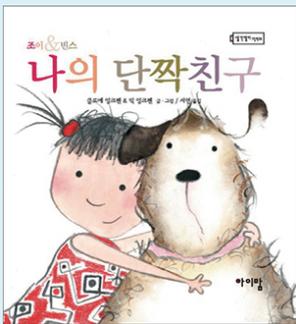


우지원 어린이 농구교실

우지원 / 파란정원 / 2018
꿈자람책방 695-우78ㅇ

오늘의 기분은 신남입니다. 농구선수가 될 거면 이 책을 읽고 농구를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농구선수가 될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윤건우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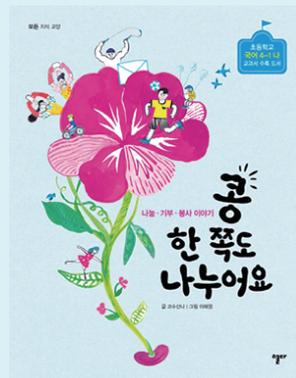


나의 단짝친구

클로에 잉크펜 / 믹잉크펜 / 아이맘 / 2011 / 그림책방 843-잉87ㄴ

내가 제일 행복한 때는 친한 사람과 있을 때입니다. 친구도 친한 존재입니다. 조이와 빈스는 물리와 빙키부 덕분에 단짝이 됩니다.

-조수완 어린이-



콩 한 쪽도 나누어요

고수산나 / 열다 / 2018
꿈자람책방 334-고56ㅋ

이 책은 엄마와 아이가 질문을 하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내 어릴 때 모습 같아서 골라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 보세요.

-손재이 어린이-



꿈바당 프로그램

2020년 꿈바당 프로그램 주제는 '인권'입니다.

함께 보고, 읽고, 쓰고, 나누며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우리의 권리.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 위한 어른들의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볼까요?



1조

아동이란?

만 18세가 안 된 사람을 아동이라 부르고, 아동은 이약속에서 말하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조

차별하면 안돼!

아동이나 부모님이 어디에 살든지,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3조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

어른들과 국가의 여러 기관들은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할 때에는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4조

국가가 해야 할 일

국가는 이약속에서 말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5조

부모의 가르칠 권리와 책임

부모님이나 아동을 보호하는 어른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알고, 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아동의 몸과 마음의 발달에 맞추어 가르치고 이끌어 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6조

생명 보호와 자라날 권리

아동은 생명을 보호받고, 잘 자라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것을 위해 가능한 일을 해야 합니다.

7조

이름을 갖고 국가에 속해야 하는 권리

아동은 태어나면 이름을 가져야 하고 국가에 속해야 합니다.

8조

신분을 지키고 되찾을 권리

국가에서는 아동의 이름과 국적과 가족관계와 같은 아동의 신분을 인정해주고 이것을 빼앗기는 일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9조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동에게 나쁘지 않는 한 아동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떨어져 있게 되더라도 부모님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10조

가족과 헤어진 아동이 다시 가족을 만나 함께 살 권리

부모님이 아동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더라도 아동이 부모님과 만나거나 함께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11조

아동이 법에 어긋나게 다른 나라로 옮겨져서는 안 돼

아동이 강제적으로 다른 국가로 보내지거나 자신의 국가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2조

아동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귀중하게 여기기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3조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권리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14조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아동은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이러한 아동의 결정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15조

모임의 자유

아동은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모임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16조

개인적인 생활 보호

아동이 자신이나 가족의 일, 혹은 전화나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 등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이것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스스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합니다.

17조

유익한 정보 얻기

아동은 책,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18조

부모의 책임

부모님은 아동을 보살피며 잘 자라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부모님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9조

아동을 괴롭히고, 힘으로 억누르며, 돌보지 않는 일은 안 돼

부모님이나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 아동의 몸과 마음을 다치거나 아프게 괴롭히거나 힘으로 억누르며, 아동을 돌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조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수 없거나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동에게 더 좋을 때는 국가에서 아동을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나 가정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21조

입양

아동이 입양 될 때에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22조

난민아동에 대한 보호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살지 못하게 된 아동은 다른 국가에 있더라도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3조

장애아동의 권리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돌봄과 보호)

장애가 있는 아동 자신과 다른 사람이 아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대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4조

건강하게 살아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아동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마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사는 것과 같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병에 걸렸을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5조

부모와 떨어져 가정 아닌 곳에서 보호되는 아동

아동이 부모님과 떨어져 가정 아님 다른 곳에서 보호되고 있다면, 아동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26조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이 도움 받을 권리

아동과 그 가족이 가난하거나 어려움에 처했다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7조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

아동은 제대로 먹고, 입고,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28조

교육을 받을 권리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9조

교육의 목적

교육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아동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 모두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과 모두 사이 좋게 지내는 것, 모두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0조

소수민족 아동의 권리

소수민족 아동이 그 민족의 문화나 종교, 언어를 가지고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31조

쉬고 놀 수 있는 권리

아동은 충분히 놀 수 있고, 문화와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2조

아동 노동으로부터 보호

아동은 위험하거나 건강을 나쁘게 하거나 교육에 방해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3조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

아동은 해로운 약물을 멀리해야 하고 그것을 만들거나 팔 때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4조

성(性)을 이용하여 아동을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일로부터 보호

아동의 성(性)을 이용하여 아동을
이용하거나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지
않도록 아동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35조

유괴 및 아동을 사고파는 행위로부터 보호

아동이 유괴를 당하거나 사고 팔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6조

부당하게 아동을 이용하거나 해롭게 하는 일로부터 보호

국가에서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아동의 행복을 빼앗고 아동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37조

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아동에 대한 보호

아동은 잔인하고 해로운 방식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38조

전쟁으로부터 보호

열다섯 살이 되지 않은 아동은 전쟁에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39조

희생자가 된 아동 보호

아동이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받거나
전쟁 중에 고통을 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아동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40조

공정한 재판과 대우

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되어 재판을
받는 아동이라도 공정하게 판단하여
결정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1조

협약 보다 좋은 권리

이 협약에서 말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보다 다른 법에서 아동에게 더
좋은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42조

협약에 대해 널리 알리기

국가는 아동권리와 이 협약에 대해
적절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아동과 어른들에게 널리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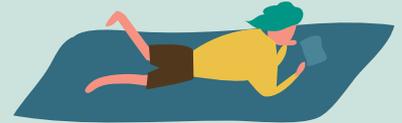


어린이 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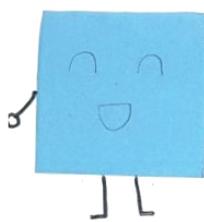
글이 살아나는 문학놀이 '꼬마작가의 노트' 프로그램

- 이해인 어린이

어린이들과 만나지 못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해인 어린이의 말처럼, 함께 모여 예쁜 눈송이를 만들 날을 기다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모양들을 만들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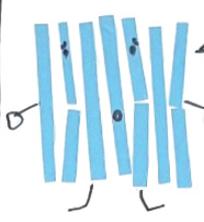


어느 하나의 행복한 네모가 있었어요.
네개의 변과 네개의 모서리가 모두
똑같은 정사각형 네모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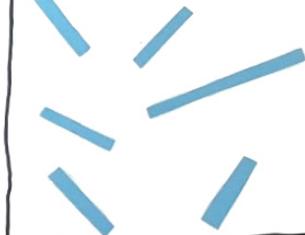
안녕!
나는
네모
야.

그러던 어느 날 네모가 길쭉한
모양으로 조각조각 잘라지자...



어...
어...?

조각들이 모두 뿔뿔히 흩어져
버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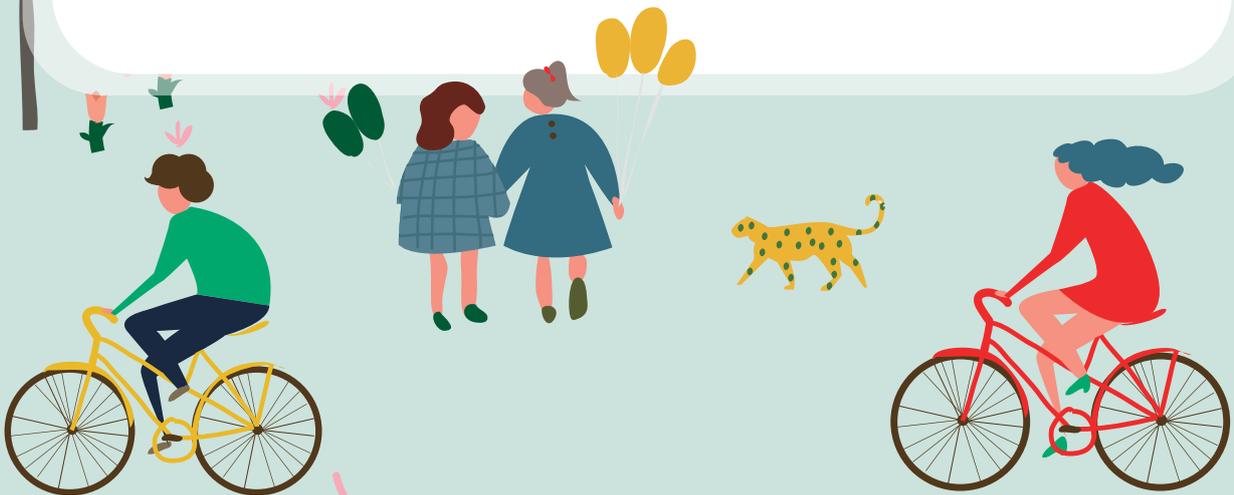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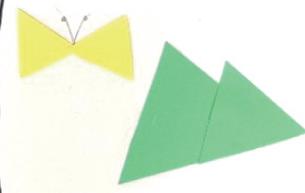
그러자 네모는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예쁜 눈송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로즈에도 행복한 네모는 조각들
을 모아 열심히 여러가지 예쁜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 어린이날을 기다리며,
2019년을 기억합니다



비롱비롱 제주어

여시는 말을 그치고 두린 왕자를 오래오래 부레단,
 “부탁헬서.....나를 질들여줘!” 하고 곱았다.
 “나도 경호고정호여.” 두린 왕자가 대답호였다. “경호주만 시간이 많지 안
 호여. ㅈ · ㅈ아사 홀 친구덜도 싯고 알아볼 것덜도 하거든.....”
 “누게나 이녀이 질들인 거 말양은 알지 못하는 거여.” 여시가 곱았다. “
 사름덜은 이제 시간이 웃언 아무것도 알질 못하게 튜여서. 상점에 강 다
 멩글어진 물건덜을 사는 거여. 호주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었이난
 사름덜은 이제 친구가 웃어. 친구를 그치고정 호민 나를 질들여줘!”
 “어땡 호민 튜는 건디?”
 “아주 참을성이 많아사 튜여.” 여시가 대답호였다. “몬저 나신디서 호꿈
 떨어정 이영 풀밭디 앓앙 이서. 나가 ㅇ · ㅍ눈질로 늘 슬쩍 브레커라. 게민
 는 아무 말 호지 말양 그만이 서. 말은 오해를 나는 거난. 호주만 는
 매날매날 호꿈씩더 가차이 드러얏게 튜 거여.....”
 뒷날날 두린 왕자는 또시 그디로 갔다.
 “ㄱ · ㅌ은 시간에 와시민 더 좋앗을걸.” 여시가 곱았다. “만약시, 나가 오후
 니시에 온덴호민 난 시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여.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호여질 테주. 니시가 튜면 난 벌써 흥분호영
 화륙화륙할 거여. 경호영 행복이 얼마나 갑난 건가를 알게 튜 테주! 경호
 나 나가 시간을 정호지 안호곡 아무 때나 오민 나는 몇시부터 마음을 곱게 단장해야
 단장해서 호는지 통 알 수가 웃이네게.....경호난 의식이 필요호호 거여.”

여우는 말을 그치고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쳐다보더니,
 “부탁이야.....나를 길들여줘!” 하고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찾아야 할 친구들도 있고 알아볼 것들도 많거든.....”
 “누구든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지 못하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었어. 상점에 가서
 다 만들어진 물건들을 사는 거야.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어. 친구를 갖고 싶으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내가 결눈질로 너를 슬쩍 바라볼 거야. 그럼 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말은 오해를 낳는 거니까. 하지만 넌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얏게 튜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는 다시 거기로 갔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여우가 말했다. “가령, 네가 오후
 네시에 온다면 난 세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네시가 되면 난 벌써 흥분해서 안절부절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그러나 네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시부터 마음을 곱게 단장해야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잖아.....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뭐디?” 두린 왕자가 들었다.

“그것도 사람덜이 넘이 이즈불언 신 거주기.” 여시가 곱았다. “어떤 날이
뜨난 날덜광, 어떤 시간이 뜨난 시간덜광 뜨나게 멩그는 게 의식이여,
만약시, 나를 조치는 사농바치덜신디도 의식이 셔. 그 사름덜은
목요일이민 무을 비바리덜광 춤을 추주. 경후난 나신디 목요일은
지꺼진 날이여! 나는 포도밭까지 산보를 갈 수 잇주. 후주만 만약시
사농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덴г 허여봐. 매날매날이 뜨나지 안후영 똑
그 · 트은 날일 거난 난 후로도 무을 방 쉬지 못할 거여.....”

영후연 두린 왕자는 여시를 질들였다. 경후단 갈라살 시간이 가차와
오난 여시가 곱았다.

“아! 눈물이 남직후여!”

“느 따문이여.” 두린 왕자가 곱았다. “나는 느 무을 아프게 후고정 안
후여셔, 경후디 이녁이 질들여도렌 후연.....”

“건 맞아.” 여시가 곱았다.

“경후디는 울젠 후염신게!” 두린 왕자가 곱았다.

“얻은 게 셔.” 여시가 곱았다. “밀밭 색깔이 이시네.”

경후고 요영 붙연 곱았다.

“장미꽃덜을 또시 강 봐. 느 장미꽃이 이 세상에 오직 후나뿐인 꽃이렌
흔 걸 알게 될 거여. 경후고 또시 나신디 돌아왕 작별 인사를 헤도라.
게민 선물로 비밀 후나를 곱아주켜.”

“의식이 뭐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사름들이 너무나 잇고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어떤
날이 다른 날들과, 어떤 시간이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게
의식이야. 가령,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나에게 목요일은 신나는
날이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보를 갈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고 해봐. 모든 날이 다들 바 없이 다 같은 날일 테니
난 하루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할 거야.....”

이리하여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러다가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오자 여우가 말했다.

“아!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네 탓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제가 길들여달라고 해서.....”

“그건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넌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얻은 게 있어.” 여우가 말했다. “밀밭 색깔이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장미꽃들을 다시 가서 봐. 너의 장미꽃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꽃이란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내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선물로 비밀 하나를 가르쳐줄게.”

시시콜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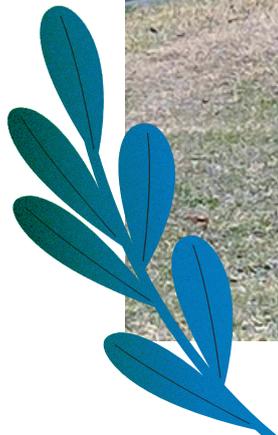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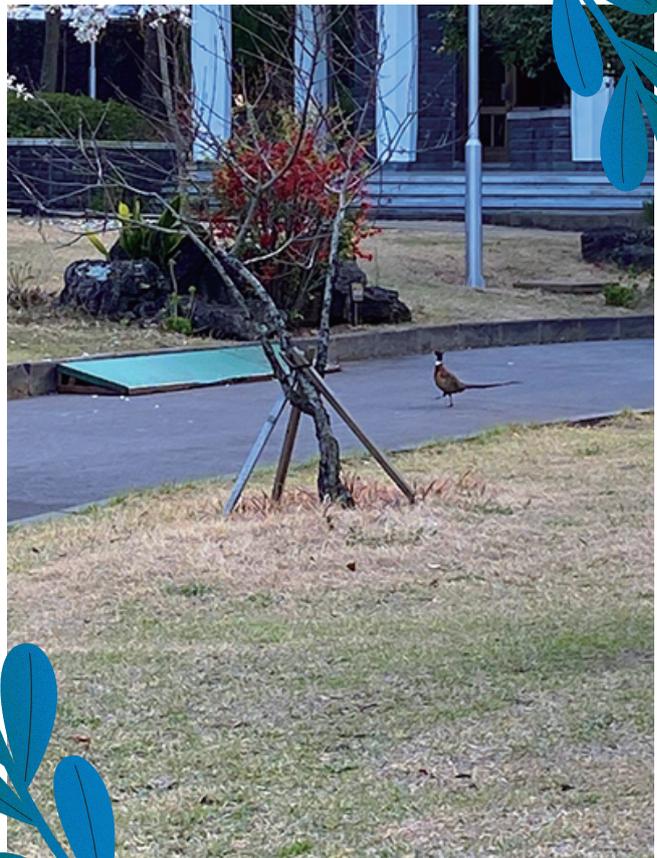


돌담 안꿈바당 정원에서

인적 드문 4월의 도서관 정원은 각종 새들과 꽃들이 차지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를 선두로, 목련과 조팝나무가 흰색으로 흐드러지게 핀 다음, 벚꽃과 복사꽃이 연달아 피어납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온 힘을 다해 피어나는 것 같은 꽃들의 아름다움은 처음 만나는 것처럼 새삼 놀랍습니다.

탐조(探鳥) 생활

산과 바다, 바람을 품은 제주는 새들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철새들이 바다를 건너다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구요, 태풍이 지나갈 때면 열대의 새들이 바람에 날려 와 제주에 불시착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꿈바당의 정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새는 동박새와 직박구리, 큰부리까마귀, 멧비둘기입니다. 꿈자람책방의 창가자리에서는 동백낭에서 심 없이 꿀을 먹는 동박새를 볼 수 있습니다. 인기척이 조금만 있어도 도망가는 겁쟁이 꿩은 텅 빈 도서관 정원을 종종 지나갑니다.





**4월의
'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

4월의 주제는 '우리는 차별받으면 안돼요'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문제를 책을 통해 들여다보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주제별 책]에서도 선정된 도서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책 원화 전시전

임시휴관이 연장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4월의 그림책 원화 전시는 반달출판사의 달토끼 거북이 오징어입니다. 어렸을 때 외계인이 되고 싶어 한 조수진 작가는 2016년 볼로냐 어린이 도서관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었습니다. 달토끼, 거북이, 오징어 셋은 어떤 사이일지 원화와 함께 소개합니다.

도서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임시휴관 기간 동안 돌담보수공사 및 방역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도서관 사람들은 책들을 재정리 하고, 정원에서 바람에 떨어진 가지들을 모으고, 쓰러진 대나무를 자릅니다. 가득 쌓인 솔잎을 거둬내고 데모르포세카와 마가렛이라는 꽃을 심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도서관으로 뛰어 들어올 때쯤에는 활짝 피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기 밝으면 안 된다고 잔소리 할 상대가 없는 도서관은 쓸쓸하지만 곧 시끌벅적해지겠지요?

